

# OECD EPC 회의 출장보고서

2022. 11. 28

KDI 경제전망실

##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출장 배경) EPC(Economic Policy Committee)는 OECD 산하 위원회로, 매년 상·하반기에 회원국 대표단과 함께 회의를 개최.
- (출장 목적) OECD Economic Policy Committee 137<sup>th</sup> Meeting 참여

## 2 출장 개요

-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 OECD 회원국 대표, OECD사무국, IMF, ECB등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 출장기간: '22. 11. 7(월) ~ 11.10(목), 2박 4일(출·입국일 포함)  
\* 개인 일정으로 인해 '22. 11. 4(금) ~ 11. 11(금) 입국

### 출장자 (총 1명)

소속	성명	직위
경제전망실	조가람	부연구위원

### 주요의제

- 현 세계경제 거시경제 상황의 일반적 평가 등
  - \* 1)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 대응 2) 에너지 시장 상황 및 정책 대응
  - 3) 전쟁 후의 우크라이나 등

### 3 출장 일정

일자	주요일정(안)	
11. 4(금)	[이동] 12:15 인천 출발 → 18:30 파리 도착	
11. 8(화)	[10:00-18:00] 행사 1일차 참석	
	10:00~10:10('10)	Introduction
	10:10~11:30('80)	Global Economic Outlook and Policy Requirements
	11:30~11:45('15)	Coffee Break
	11:45~13:00('75)	Global Economic Outlook and Policy Requirements (continuation of previous session)
	13:00~15:00('120)	Lunch Break
	15:00~16:45('105)	Energy Markets: Security, Affordability and Climate Transition
	17:00~18:00('60)	Ukraine after the War
11. 9(수)	[09:30-13:00] 행사 2일차 참석	
	09:30~09:45('15)	Working Party No. 1, Report by the Chair
	09:45~11:30('105)	Labour Markets, Wages and Purchasing Power in an Economic Downturn
	11:30~11:45('15)	Coffee Break
	11:45~12:30('45)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12:30~13:00('30)	Closing
11.10(목)	[이동] 21:00 파리 출발 → 익일(11.11) 17:05 인천 도착	

### 4 회의 주요 내용

#### Round 1~2 (8일 오전 세션) Global Economic Outlook and Policy Requirements

#### 1. 안건 및 발표 주요 내용

##### [ 최근 경제상황 및 전망 ]

- 글로벌 GDP는 '22년 3.0%, '23년 2.1%, 24년 2.8% 성장할 전망
  - \* 2022년은 3.0%로 2021년 코로나 대유행의 절반 수준이며, 2023년에는 2.1%로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높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공급부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며 성장 둔화
- 2024년 세계 성장률은 몇몇 국가의 정책 금리를 완화하기 위한 단계의 도움으로 전년(2.1%)보다 증가한 2.5%를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
- ※ 세계경제 주요 하방리스크로는 ①정책금리 인상, ②높은 인플레이션, ③에너지 공급부족, ④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적
  1. 신흥국들은 통화를 더욱 긴축하고 완화의 여지를 제한할 가능성
  - 2, 3.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며 특히 에너지 가격을 크게 상승시킴.
  4. 전쟁의 여파는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더 극단적인 날씨 사건과 결합될 경우 세계 식량 안보에 위협

OECD 세계경제 전망(%)

	'13-'19평균	'21년	'22년	'23년	'24년
<b>실질 GDP 증가율</b>					
전세계	3.4	5.9	3.0	2.1	2.8
G20	3.5	6.2	2.9	2.1	2.8
OECD	2.2	5.6	2.7	0.8	1.5
미국	2.4	5.9	1.6	0.6	1.3
유로존	1.9	5.3	3.1	0.4	1.6
일본	0.8	1.7	1.6	1.4	0.7
비OECD	4.4	6.2	3.3	3.3	3.9
중국	6.8	8.1	3.3	4.7	4.1
인도	6.8	8.7	6.6	5.7	6.9
브라질	△0.4	4.9	2.8	1.2	1.4
<b>실업률</b>	6.5	6.2	5.1	5.4	5.5
<b>인플레이션</b>					
G20	3.0	3.9	8.0	6.4	5.9
OECD	1.6	3.8	9.3	6.7	5.5
미국	1.4	4.0	6.3	3.6	2.5
유로존	0.9	2.6	8.2	6.9	3.5
일본	0.9	△0.2	2.3	2.0	1.6
<b>재정수지(GDP 대비)</b>	△3.2	△7.4	△4.0	△3.9	△3.4
<b>글로벌 교역량</b>	3.4	10.0	5.3	3.0	3.7

[ 주요국 성장전망 ]

- (미국) '22년 1.6% → '23년 0.6% → '24년 1.3% 성장 전망
  -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된 재정 상태는 경제 전반의 지출 계획을 더욱 저해하며 '24년이 되어서야 연준 목표치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
- (중국) '22년 3.3% → '23년 4.7% → '24년 4.1% 성장 전망
  -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부문의 조정을 완화하는 지원책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며, 수출 증가율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따라 둔화
- (유로존) '22년 3.1% → '23년 0.4% → '24년 1.6% 성장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과 통화정책 긴축, 세계 경기둔화 등으로 '23년 유로존의 실질 GDP(0.4%)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일본) '22년 1.6% → '23년 1.4% → '24년 0.7% 성장 전망
  - 인플레이션은 실질 가계 소득 및 내수를 위축시키고, 교역 상대국의 탄력성 상실은 수출과 투자 둔화로 이어져 낮은 경제 성장 전망

[ 정책권고 ]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정책 금리를 일정기간 중립 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추가적이고 엄격한 통화 정책이 필요
  - \* 그러나, 중립수준의 금리는 장기적인 개념이며 관찰되지 않고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
- (재정정책) 에너지 지원 등의 분야에 대상을 설정한 재정 정책 지원 및 국가보조금의 투명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을 고려할 필요
  -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는 동안 취약한 가정을 보호하려면, 가구 구성 및 공공 접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가격 충격 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이 있고 시간이 제한적인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신흥국 대상 정책) 안정적인 공공 부채 지속 가능성을 향한 중기적 경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가 필요
  -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지출은 재정 통합에 한계를 가져옴.
  - 정책의 예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적자에 대한 통화자금 조달을 끝내는 것이 재정 앵커로의 회복을 도움.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높은 상품 가격으로 인한 횡재 수입이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했지만, 공공부문 임금 법안을 억제할 필요

- (구조적 정책) 효과적이고 목표를 잘 설정한 구조적 정책 개혁은 현 상황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충격에도 대응하기 위해 필요
  - 팬데믹, 전쟁, 빈번한 기후변화는 이와 상호작용하는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 미래에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 탄력적인 성장을 촉진하려면 경쟁적이고 투명한 시장, 건전한 정부와 신속하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전략이 필요
  - 기업은 더 역동적, 친환경적, 혁신적이게 되는 것을 막는 정책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술 정책과 경쟁 정책을 적용해야 함.
  - 무역 개방 및 이민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 공급 측면의 압력을 완화

## 2. 주요 논의 내용

- COVID-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기후변화 등의 주제를 핵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
  - 국제 무역을 개방하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인적 자본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투자하는 정책에 우선순위
    - COVID-19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에너지 가격 인상을 포함한 최근의 모든 이슈가 물가(인플레이션)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는 고민해야함.
    - 많은 나라들의 GDP 성장이 둔화되었고,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높은 에너지 가격, 증가하는 가계 부채, 식량 공급 등의 위협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실질임금에 또 다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음. 중앙은행은 가계에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설계할 때 이를 고려
- 세션 후반부는 신흥시장에 초점
  - 미국 통화정책 긴축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신흥국 각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 지역 통화 가치 하락은 무역 측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움이 되었지만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기다리는 대신 생산성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브라질은 인플레이션과 부채측면에서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무 지출의 증가를 제한함으로써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면 공공 재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임. 제로-코로나 정책은 많은 나라들의 관심사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동유럽의 국유기업들은 EU 통화정책에 묶여 재정정책의 여지가 제한적이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음. 실질임금 하락과 내년 경기침체가 우려
  - 높은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동의하며 이에 따른 정책을 고려할 필요

## Round 4 (8일 오후 세션)

# Energy Markets: Security, Affordability and Climate Transition

## 1. 안전 및 발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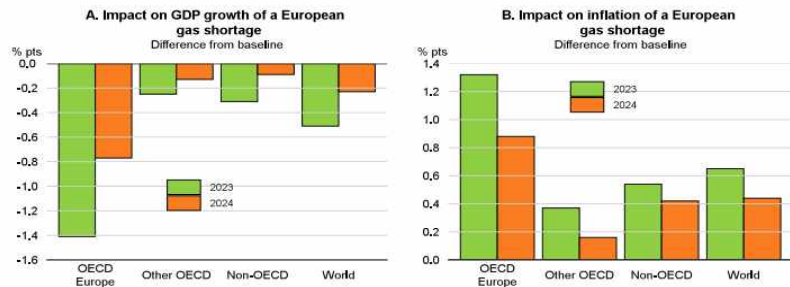
### [ 에너지 시장 핵심 이슈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면화된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은, 러시아 공급의 신뢰성 등으로 대체 공급 확보의 필요성에 관심을 모으게 함.

\* 에너지 공급 부족은 특히 유럽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침.

※ [참고] 에너지 공급 부족은 유럽의 성장을 제한시킬 가능성

- 장기적인 가스 부족과 높은 불확실성은 2023년과 2024년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높은 에너지 가격은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과제를 남김.
- 중기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

- 에너지 위기(고에너지 가격)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할 필요

## 2. 주요 논의 내용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은 특히 유럽에 크게 작용

- 유럽이 에너지 위기의 중심에 있으며, 이미 가스과 전기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추운 겨울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음

- 2022년까지 EU의 가스 저장 수준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평균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졌지만,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한 감소가 없는 한 겨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 이번 겨울 뿐만 아니라 다음 겨울까지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 결과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유럽 밖, 특히 아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LNG의 양을 줄일 것

-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조치가 필요한 소비 조정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적은 국가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 콜롬비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교역 비중이 낮아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음. 그러나 유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다른

물가도 영향을 받음.

- 콜롬비아의 가스 및 전기 시장은 유럽과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이 수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가격은 2023년에 4-8% 인하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위기로 인한 가격 상승은 주로 콜롬비아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유 가격을 통해 콜롬비아의 수출과 재정 수입을 증가시킴.

## Round 5 (8일 오후 세션)

### Ukraine after the war

#### 1. 안건 및 발표 주요 내용

- 전쟁 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제도와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아젠다에 대해 논의
  - 러시아의 침략이 계속되는 동안 전쟁과 관련된 단기적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의 정책을 지배할 것

#### 2. 주요 논의 내용

##### □ 우크라이나의 현 경제 상황

-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음.
  - 우크라이나의 GDP는 30~50% 하락, 실업률은 2022년 35%까지 치솟았으며 30% 안팎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임.

##### □ 신속한 원조와 국제적 정책 지원이 필요

- 조건부이지만 신속한 원조가 필요
  - 대출이 아닌 원조가 필요한 이유는 원조는 보조금 형태이며 대출은 미래의 부채 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
- 원조는 독립적인 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원조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직접 해야 함.
- 혼란을 틈타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조치가 필요
-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약 2,000억에서 5,000억 유로로 추정됨.

## Round 6 (9일 오전 세션)

### Working Party No. 1, report by the Chair

#### 1. 안건 및 발표 주요 내용

□ WP1 회의('22.10.13~14)에서는 다음의 10개 아젠다에 대해 논의

① 에너지 시장 상황 및 정책 대응에 대한 논의

(Discussion on the Energy market situation and policy responses)

○ NiGEM 거시경제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추가적인 급격한 가스 가격 상승 충격과 일시적으로 강제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의 경우 '23년과 '24년 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강조

○ 신규 LNG 수출시설 건설에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부족해진 글로벌 공급으로 고유가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기후 변화 완화 정책에 현 정책수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

○ 일부 대표자들은 **에너지 집약적 생산의 배급을 위한 비상 계획이 앞당겨져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부문 간 이질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부족의 영향을 모형화 함에 있어 **적시에 잘 목표화된 정책 대응을 위한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

② 주택, 그린 주택: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Home, Green Home: Policies to Decarbonise Housing)

○ 주택 부문 배출량을 줄이려면 **개발에서의 탈탄소화**와 주거지의 강력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동반한 **단계적 화석 연료 사용 폐지**

가 필요

○ **녹색 건축 표준의 더 큰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은 녹색 부동산 자산과 순 제로 CO2 목표 달성을 촉진

○ 충분한 탄소 가격 책정 없이, 더 효율적인 가전제품이나 가정에서 절약되는 에너지를 더 큰 에너지 사용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반등 효과"**를 강조

③ 전환점에서 최저임금?

(Minimum wages at a turning point?)

○ 청년층, 특히 15~19세의 고용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실증분석 결과

○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ALMP)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재교육과 기술 향상을 통해 광범위한 범주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 효과를 상쇄**

○ 최저임금 논쟁의 복잡성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함**.

④ 국가 간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방법

(Option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across countries)

○ 서브 국가 정책이 연방 국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 국가 정책의 역할을 언급**

○ 태양열 및 풍력발전,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기술과 같은 **일부 정**

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후 접근방식의 추정치가 **유연하고 견고할 필요성을 강조**

○ 일부는 배출 감소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분석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도 강조**

⑤ 사업 투자 및 기업 과세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  
(Ongoing work on business investment and corporate taxation)

○ 많은 국가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의 추가로 지지받았으며, 조세 민감성의 동인으로 고려해야 할 흥미로운 요소로 **다수의 기업특성이 제안됨**

○ 대표자들은 세금 수당과 같은 실효 한계 세율에 반영된 조치의 범위에 대해 질의

○ 일부 대표자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투자 패턴과 투자 연구에 대한 혼란을 주제로 제기**

⑥ 2023년 OECD 상품시장 규제지표 업데이트 : 방법론 개선안  
(2023 update of the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s: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methodology)

○ 가장 중요한 개정은 공기업의 존재가 경쟁에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왜곡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지표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더 잘 반영하여 OECD 지침과 일치시키기 위해 점수 매기는 방법**

○ 다수의 대표자들은 기업 인수가 대유행 및/또는 에너지 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의 맥락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때**

SOE의 처리를 염두에 두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

⑦ 디지털 세계에서의 경쟁 규제 및 성장  
(Competition regulation and growth in a digitized world)

○ 규제 차원의 경쟁과 품질을 따라 국가의 벤치마킹에 점점 더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품 시장 정책을 평가하는 새로운 부문 지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

○ 대표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동의했으며 **변화가 빠른 디지털 분야인 만큼 지표의 업데이트를 PMR보다 빠르게 하자고 제안**

○ 일부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전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후 대책과 보완성을 주장**

⑧ 인구 고령화 및 정부 수입: 매출 증대를 위한 예상 동향 및 정책 고려 사항  
(Population ageing and government revenues: Expected trends and policy considerations to boost revenues)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지출 증가는 정부의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 감소, 연금 개혁, 세금 증가, 부채를 증가시키도록 허용해야 할 것**

○ 증세를 선택한다면 **효율성, 형평성, 국민 수용성 기준을 따져보고** 특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세계 전반을 고려**

○ **과세 기반을 넓히고 조세 집행과 징수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유익할 것

⑨ 장기 모델 녹색화 진행 상황

(Progress with greening the Long-Term Model)

- 환경 이사회의 ENV-Linkages 모델에 기초한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성장 탄력성의 예비 추정치가 제시되었고, 금융 시스템 녹색화(NGFS) 시나리오에 사용된 두 모델의 추정치와 비교
  - 특히 ENV-Linkages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여러 차원의 탄력성 개선도 논의
- 각국은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장기 모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
- 대표자들은 모델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사무국은 모델에 대한 추가사항을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 기술적 부록에 동의

⑩ 경제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부실 프레임워크 강화

(Enhancing insolvency frameworks to support economic renewal)

- COVID-19 관련 정책 지원의 점진적인 철회, 에너지 비용 및 금리 상승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구조조정 요구에 비추어 효율적인 파산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 다양한 충격(예: 코로나, 에너지 가격, 공급망)에 노출되는 부문별 이질성을 활용하여, 업데이트된 OECD 파산 프레임워크 지표를 사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2016년 이후로 조기 경고 시스템과 사전 지급 불능 프레임워크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을 위한 단순화된 프레임워크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Round 7 (9일 오전 세션)

Labour markets, wages and purchasing power in an economic downturn

1. 안건 및 발표 주요 내용

[ 경기침체 속 주요 이슈 ]

- 여전히 엄격한 노동시장과 가계 구매력의 손실에 대해 논의
  - 기술 불일치와 노동시장 경직성은 디지털 및 기후 변화의 맥락뿐만 아니라 공급 충격에 대응하여 필요한 노동 재배치를 방해할 수 있음
  - 임금의 성장은 지금까지 가격의 성장을 따라잡았고, 그 결과 가계 구매력의 손실을 초래
-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임금은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식료품과 에너지에 사용되는 소득의 비중은 저소득층이 더 높고, 에너지에 사용되는 소득의 비중은 농촌이 더 높음.
  -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침.

2. 주요 논의 내용

- 노동 생산성은 대유행기간 동안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감소했으며, 아마도 기업들이 엄격한 노동시장 문제로 자격이 없는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일 것
- 프랑스 경제는 젊은 노동자 그룹의 노동시장이 2019년과 비교하여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이것은 부분적으로 팬데믹 이전에 시행된 고용지원 정책으로 설

명 가능

- 멕시코의 노동시장은 완전히 회복
  - 고용 증가율은 '20년 3월 대비 국가 평균보다 도시가 높고, 국경 지역도 국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 멕시코에서도 공식 및 비공식 부문에서 실질임금이 하락
- 인플레이션이 임금, 근로 연령 혜택 및 연금에 어떻게 도전하는지 실질임금 감소가 만연하며, 노조가 강한 국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복리후생비와 연금을 조정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필요

## Round 8 (9일 오전 세션)

###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 1. 안건 및 발표 주요 내용

- '22년 6월 10일 OECD 주도로 탄소 완화 접근법에 대한 포괄적 포럼(IFCMA)이 출범
  - IFCMA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교 효과 및 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 가격 기반 및 비가격 기반 기후 변화 완화 정책과 기후 변화 완화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검토하고 주로 온실 가스 배출 감소 효과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
- IFCMA는 현재 두 개의 모듈로 구성
  - 모듈 1의 목적은 IFCMA 국가의 주요 기후변화 완화 및 관련 정책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가 적용하는 배출물에 정책을 매핑하는 것
  - 모듈 2의 초점은 모듈 1의 작업에서 다루는 개별 정책 또는 정책 패키지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측면의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데 맞춰질 것
  - 두 모듈 모두 국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및 필요에 따라 다른 전문가와 협의하여 수행
  - IFCMA의 잠재적인 향후 작업은 모듈 1과 모듈 2에서 분석한 다양한 조치 및 조치 패키지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배출의 평가 순서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정책의 세분성 및 범위 측면에서 좋은 에너지 시스템 모델과 같은 상세한 Ex-ante 부문별 모델을 사용.

- 그 다음 기존 부문별 모델의 출력을 CGE 모델에 입력하여 배출물에 대한 개별 정책 및 정책 패키지의 영향을 정량화하고 2차 효과를 고려
  - 배출에 대한 정책의 영향 평가를 완료한 후, 다양한 기후 정책 및 정책 패키지의 비용 효율성을 분석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 실용적인 방법은 자원 제약 외에도 선택된 방법의 강점과 한계, 가용성,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